

# 민주 “尹 방심위원 편파 임명, 직권 남용 고발·헌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가운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간담회... 류희림 방심위원장 해촉 촉구 “청부 민원 위법자 놔두고 야권 위원 해촉... 정권 심의기관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문제를 제기한 야권 추천 김유진·육시찬 방심위원이 해촉된 것과 관련해 류 위원장 해촉를 요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청부 민원 위법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놔둔 채 문제 제기한 야권 위원을 해촉하는 행위를 어떻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말 후안무치하게 류 위원장에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도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와 직권 남용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류 위원장을 해촉하라”며 “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 구성과 방송·통신·광고 등 모든 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두 위원 해촉 재가 5일 만인 전

날 야권 추천 새 위원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 위원은 3개월째 위촉을 미루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만 임명한 건 국회 무시와 반쪽짜리 편파적 임명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위촉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택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에 대해 권한 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방심위도 국가기관이라고 판시했다. 국가 기관에 대한 형사상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 소원 제기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추천인 최선영 후보자는 추천 석 달이 넘었음에도 위촉권자인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추천된 분의 권한 침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은 방심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치적 선언 혹은 제도적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엔 해촉된 김 위원도 자리해 “(류 위원장) 공익신고자 탄압 행태에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시 야권 추천 인사로, 두 위원 해촉에 반발하며 심의 활동 중단을 선언한 윤성욱 방심위원은 “아무도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불공정한 심의는 불공정 방송을 낳고, 불공정 선거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앞서 윤 의원은 류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진 사건을, 김 의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17일 각각 해촉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전남 여권 추천 문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숙 전 KBS 글로벌 전략센터장이 위촉됐다.

한편,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이 류 위원장을 ‘청부 민원’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 다음 주 월요일에 직접 가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대통령, 한동훈 사퇴 요구는 총선 개입”

### 민주 원내대책회의 “불법 명백... 국민 심판 강도 더 세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과정에 “대통령실의 당부 개입을 넘어 총선 개입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한 위원장에게 사전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사전이든 시스템공천이든 (대통령이)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다. 또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내세워서 뒤로 숨는 듯하다가 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며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의 (정권)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은 “계획된 갈등이든, 실제 권력 투쟁이든 상관없다”며 “갈등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이

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여권 내 갈등으로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의 재의결에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 다수가 특검을 원하기 때문에 양심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이 ‘커밍아웃’을 하시면 어떻까”라고 언급했다.

당 고문인 박지연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 “(명품) ‘백의 전쟁’은 ‘권력 투쟁’이라며 ‘이 사태를 봉합하려면 한 위원장이 공천, 특검(문제)에 배기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총선 브리핑

## 이용빈 “광산구에 순환형 상생 관광벨트 조성”

###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이용빈 의원(민주·광주 광산갑)은 23일 “영산강 Y 벨트, 어등산 스타필드 레저 관광, 영산강·황룡강·장목습지에서 생태관광, 송정동·도산동·월곡동에서 음식과 남도문화를 즐기는 ‘순환형 상생 관광 벨트’를 조성해 광산을 호남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관문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광산구 지역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을 발표하고 ‘호남 관광 1등 도시 광산’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스타필드 개발로 인한 지역상공인의 우려를 줄이고 광산 지역 경제를 새롭게 키울 수 있도록 ▲광주송정역을 제2의 용



산역으로 ▲광산구 일대를 순환형 상생관광 특구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연계형 상생관광벨트 거리 조성 등 관광·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기반의 보호와 육성’, ‘지역 기반의 경제적 활력’, ‘지역 기반을 주된 동력으로 한 확장성 모색’ 등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삼겠다”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광주송정역 역사권과 금호타이어공장 부지를 묶어 국제업무·관광·레저 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

## 강은미 “중대재해법 개정안 유예 연장 안돼”

###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서구를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연장되면 사업장의 제해 예방 투자와 현장 개선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필요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준비기간 동안 무책임, 무계획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적용 유예를 운운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으로 현재 50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

## 정준호 “서방천 복원해 광주의 청계천 만들 것”

###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북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정준호 예비후보는 23일 “서방천을 복원해 광주의 청계천으로 만들고, 북구의 ‘서방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서방천이 복원되면 임동기아 챔피언스필드와 전남방직 부지부터 북구청 앞까지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이 탄생하고, 임동에서 전남대로 이어지는 축선 구간이 활성화된다”며 “항후 전남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쇼핑몰의 ‘물세권’ 파급 효과를 개발이 더딘 신안동과 중흥동까지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방천 하류인 광주천 합류부부터 무등경기장과 신안교 사이의 복개는 절거렸지만 상류 부



근은 여전히 콘크리트 뚜껑이 덮여 주변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 예비후보가 제안한 생태하천 사업으로 복원되는 서방천 구간은 신안교 교차로부터 전남대 치대와 정문, 북구청 교차로까지 1.6km 구간으로 약 4km의 산책로가 조성된다.

정 예비후보는 “생태하천 조성으로 예상되는 연간 방문객은 255만명이고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예상 경제 효과는 연간 1500억원이다”며 “도심 외곽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역 주변을 살려내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엔지니어링 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식성,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